

#### 발표 4.

##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 혜 련  
동강대학 간호학과 교수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증 치매노인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과 프로그램 중재기간은 2002년 5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두 개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중 MMSE-K 총점이 15점에서 23점 사이에 해당되는 자로서 실험군 15명, 대조군 16명으로 총 31명이었다.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인지적 자극을 위한 개념기억훈련, 정서적 자극을 위한 음악요법, 미술요법 및 뇌 기능 증진을 위한 손 운동요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주일에 2회, 1회에 1시간 30분씩 8주 동안 실험군에게 제공되었다.

연구도구로는 인지기능은 Folstein(1975)이 개발한 MMSE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수정 보완한 MMSE-K를 사용하였으며, 우울은 배재남(1996)이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Bathel의 BADL을 박종한, 조성완과 손형석(199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행동은 Farina(1957)가 개발, Dastoor 등(197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김부영(2001)이 번역하여 사용한 사회적 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험 전 두 집단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test 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하였으며,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 종속변수에 대한 가설검증은 Paired-t test와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t-test, Wilcoxon rank sum 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에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험군과 대조군에 실험 전 동질성은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은 동일한 집단이었다.
- 2) 제 1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기 전보다 후에 인지기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4.446, p= .001$ ).
- 3) 제 2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기 전보다 후에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t=6.885, p= .000$ ).
- 4) 제 3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기 전보다 후에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Z=-1.089, p= .276$ ).
- 5) 제 4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기 전보다 후에 사회적 행동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Z=-3.308, p= .001$ ).
- 6) 제 5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높은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t=3.350, p= .002$ ). 간호중재 프로그램 제공 전 집단 간의 차이를 조정해서 공변량 분석한 결과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7.510, p= .000$ ). 영역별 공변량 분석한 결과 지남력( $F=11.181, p= .002$ ), 기억등록( $F=7.577, p= .010$ ), 기억회상( $F=15.999, p= .000$ )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7) 제 6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t=-5.625, p= .000$ ). 또한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F=39.762, p= .000$ )를 나타내었다.
- 8) 제 7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Z=-1.726, p= .084$ ). 공변량 분석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F=1.711, p= .194$ )를 나타내지 않았다.
- 9) 제 8가설인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Z=-3.186, p= .001$ ).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F=12.935, p= .001$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로서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요어** :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 경증치매노인,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행동